

강진군, '맛 지도' 제작 관광지 먹거리 '한눈에'

강진읍 5개 특화거리별 '강진 맛집' 수록...1만 부 배포



강진군의 먹거리와 주요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맛지도인 '맛탐방이야기'가 제작됐다. '맛탐방이야기'에는 강진읍 5개 특화거리별 맛집과 '강진읍 100배 즐기기 관광지'가 수록돼 있다. 지도는 편대와 이용이 편한 포켓용 접이식으로 제작됐으며 군은 맛 지도 1만 부를 제작해 지난 16일부터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맛 지도에는 관내 음식 명소들의 먹음직스러운 사진과 함께 주

메뉴, 운영시간,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실려있다. 한정식부터 양식과 중식, 배달음식까지 다채로운 종류의 음식점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오늘밤의 파티!'라는 주제로 관내 음식점에서 판매 중인 아식과 안주 메뉴를 소개하는 한편, 핫도그와 크로켓, 분식 등 출출할 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 판매점과 분식점의 정보도 담고 있다. 기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맛

집의 정보도 수록됐다. 군이 지정된 22개소의 모범음식점과 남도음식명가, 강진 지정음식점과 더불어 강진한정식, 강진 회춘탕도 소개하고 있다. 맛집 외에도 강진 주요관광지와 올해 열리는 강진청자축제,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의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 군은 지속적으로 맛지도 소개업소에 대한 맛과 친절서비스를 평가해 미흡한 점을 시정·개선하고 체계적인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창출과 이준범과장은 "관광객 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강진 맛지도에 수록된 내용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 주요관광지와 더불어 맛집 탐방을 즐기며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강진 관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복합민원 일사천리로 해결해 드립니다"

적극행정 통한 규제 애로 해소로 군민 만족 행정 실현

완도군이 복합민원의 윈스톱 처리를 위한 '일사천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각각의 인·허가 부서(민원봉사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등)를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 처리 부서의 개별법 검토를 위한 협의 지연 등 민원인의 불만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조직진단 및 찾아가는 인사 상담,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권의, 복합민원팀 내 인·허가 전담 인력 구성 및 접수창구 일원화를 통한 민원처리 단축을 제고 방안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지난해 12월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1월 농지, 산지관련 인·허가 업무 복합민원팀 이관 및 인력충원을 완료하였다. 복합민원팀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배출시설 인·허가, 오수 처리 시설 신고, 가축분뇨 시설설치 허

가 등 최소 4개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 상황을 처리하고 있다. 완도읍의 한 주민은 "기존에는 복합민원인 경우 여러 부서를 방문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합민원팀에서 일괄 접수하여 상담하고 처리를 해주니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편 사항 해소 및 복합민원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접수부터 해결까지 처리 상황 안내, 처리기한 단축,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천 건강산책로 경관조명 조성

진도군, 태양광 충전식 표지병 300개 설치

진도군이 진도천 주변 산책로 1.6km 구간에 사업비 약 4,000만 원을 투입 경관조명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하는 조명은 태양광으로 운용되는 표지병으로 800m 이상의 가시거리로 산책로 주변에 설치되면 군민 안전 확보와 함께 뛰어난 경관 개선효과가 예상된다.

태양광 표지병은 지면에 부착된 태양광 충전식 발광장치로 기존 가로등에 비해 설치 구간을 좁게 설치해 밤길을 밝히는 데 큰 장점이 있다. 설치구간은 진도읍 남동천(조금이리) ~ 고작마을 입구 까지 약 1.6km 구간으로 7월 초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여가 활동 공간은 물론 아름다운 경관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침체된 지역 상가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진도군 경제개발과 관계자는 "경관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 공간 조성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와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소재지에도 야간 불빛을 활용한 생활문화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오는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접수

해남군이 민선7기 후반기 군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을 접수한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등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해소를 위한 제안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단순사업 뿐만 아니라 군의 시책과 군정 방향까지 다양한 제안을 접수할 예정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예산 운용을 통해 민선7기 후반기 군정 혁신을 위한 주민 참여

되는 사업, 특정지역 및 특정인을 위한 사업, 주민갈등소지가 있는 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등은 예산 반영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군의 추진여부 검토와 읍면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제출시점에 따라 2020년도 4회 추경(8월 예정)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 이와 관련 7~8월 중, 찾아가는 읍면 예산학교를 운영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운영절차 및 제안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군민들의 예산과정 직접 참여는 살고 싶은 해남군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민선 7기 후반기 군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제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군정 추진·코로나 극복 위한 예산편성
재정운영 투명성 확대·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확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집중 제안 기간에는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군민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방안, 분야별 정책제안, 지역공동체사업 및 기타 일상생활 불편

를 폭넓게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민사업제안은 군청 기획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군에서 추진 불가능하다고 판단

장흥군, 지역 대형관광버스 랩핑 홍보

통합 브랜드 산들해랑·해동사 홍보 위해 시행

장흥군은 지난 17일 장흥군 소재 관내 여행사에서 보유 중인 대형관광버스에 대해 홍보 랩핑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장흥군의 관내 관광버스 홍보 랩핑은 2019년에 정남진 여행사, 2020년에 세계항공 여행사, 정남진 여행사, 나라고속 장흥지점 총 9대를 지원했다.

군에서는 주요 관광지 특산물 통합 브랜드인 산들해랑 및 해동사 홍보를 위해 디자인하고 랩핑을 시행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관내 관광버스가 전국을 누비면서 정남진 장흥의 이동 홍보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영암군, '여름철 가축 질병 신고센터 운영'

영암군은 여름철 가축 질병 신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9월까지 '여름철 가축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신고센터는 가축질병 의심 신고 즉시 현장 출동해 병성감정 의뢰와 치료방향을 제시하고, 방역활동도 병행으로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질병 발생 시 군청 축산과(☎470-2040,2163)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천지농특산물

친환경 농업의 메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함평천지 농특산품을 만나보세요.

함평 로컬푸드 직매장 Tel 061-324-8331







